

“단기적 성과나 정책보다는 근본적 가치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

이경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 한국방송광고공사 기획부장
- 동아일보 논설위원
-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 공보처 차관
- 제15대~제18대 국회의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현)



해직기자 출신으로 공보처 차관 시절 케이블TV 시대를 연 주역. 제15대부터 내리 4선을 한 국회의원. 이제 방송통신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 돌아온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 4·19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4월 19일 사회학 개론 첫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나가자!”하는 소리를 듣고 선배·동기 20여명과 함께 첫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정을 나서 당시 국회의사당인 태평로와 현 청와대인 경무대 앞까지 진출해 최초 발포와 피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라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당시 경찰들이 쏜 총에 소방차 위에서 시위를 하던 고교생들이 추락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훗날 혁명 참여자들이 만든 회고록에 ‘벚꽃처럼 떨어졌던 4·19 영령들’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께 건의해 4·19 ‘의거’를 ‘혁명’으로 바꾸고, 지난 2010년 혁명 50주년에는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광화문 광장에 4·19를 추모하는 기념탑을 세우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요즘도 당시 순수하게 참여했던 사람들과 ‘4월회’라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언론계에 입문하신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ROTC 소위로 임관해 포병장교로 관측초소(OP, Observation Post)에서 복무했는데 저는 주로 VIP들께 브리핑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은 군사령관이 와도 눈도 꿈쩍 안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올테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고보니 동아방송 기자들이 개국 1주년을 기념해 ‘155마일 전선 이상없다’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상 하던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며칠 뒤 제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앵커가 ‘지금까지 이경재 소위였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사단장도 별벌 떠는 영향력있는 언론사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ROTC 근무가 인연이 되어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 1967년부터 1980년, 그리고 해직기간을 지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시고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정계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 당

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있다가 불혹의 나이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되었는데 그 때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4년간 실망과 좌절로 방황하다가 겨우 복직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아니라 '신동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1985년 총선에서 신민당의 돌풍이 일었는데 제가 민주화 운동의 두 대부이신 김영삼 · 김대중 씨에 관한 기사를 과감하게 썼고, 덕분에 신동아가 속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이 되어 대선 캠프에도 들어가고 김영삼 정부 초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 ● 국회의원 시절 국회 내 테니스 동호회모임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테니스를 즐겨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세에 비해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테니스 말고 별도로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요.

테니스 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무릎 수술을 한 이후에는 테니스를 치지 못하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요즘은 건강관리를 위해 가급적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배트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에는 반신욕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바둑 두는 것을 즐겨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없다보니 가끔 바둑TV를 보는 정도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 ● '삐삐밴드'의 여성 보컬이자 스타일리스트인 이윤정 씨가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에 설치미술가인 사위를 두셨습니다. 가족 구성이 특이한데 가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가족 구성입니다. 딸과 사위는 기존 음악과 무용, 미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융합'한 전혀 새로운 퍼포먼스를 해 나가고 있고, 며느리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해외에 판매하며 한류를 수출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진로에 반대도 했지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선택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지금은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딸이 그저 한 때 멋에 겨워 가수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틀에 박힌 것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낯선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당찬 모습이 기특합니다.

저 역시 젊은 사람들과 소통, 오픈마인드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언론보도를 보면 현장 방문을 활발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연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경영 환경은 녹록치 않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다들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도와주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첨예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같습니다. 사업자 각자의 입장에서 제도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요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셔든 늘 강조하는 원칙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 즉 '국민편익'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기술발전으로 인한 이익은 특정 사업자만 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누구도 이익을 제기하기 어려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부터 '공정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신데요.

무리하게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언론관이자 철학입니다.

과거 이런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젊은 시절 해직기자의 아픔을 겪었고, 정권을 비판한 책이 판매금지 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으며,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균형된 사고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재원구조 개선 문제, 방송 심의 문제 등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경영 능력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방송사 내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례로 최근 MBC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 '낙하산', '정권 개입' 등 논란이 거의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은 공보처 차관 및 국회의원 시절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공보처 차관 시절 편집기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 강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0년 모 지역일간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공천현금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조정이 잘 되어 1면에 정정보도문을 크게 게재해 제 명예를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의 일도양단식의 판단이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제도와 기구를 국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 사이버공간의 윤리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에 ‘선플정치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선플 달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하셨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이버윤리 문제를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악플)을 통한 인권유린이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선플운동을 시작했고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선플의 날’로 선포해 매년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규

제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아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캠페인을 통해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인터넷윤리 골든벨 퀴즈를 출제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외에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위원장이 되시고 100일 동안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참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온 느낌도 납니다. 자평하기에는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공보처 출신이고 국회에서도 방송통신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업무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과 상임위원들의 훌륭한 인품과 실력 덕택에 출범 당시 우려와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미래부와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출범하자마자 MOU를 체결하고 기금도 공동 관리하기로 하는 등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 협력을 다지기 위해 조만간 고위급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계획이며 부처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 문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외부에서 나쁘지 않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나 정책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승민 (홍보팀 차장)

위원동정

COMMISSIONERS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맡아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7월 15일 민병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가 주관한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손 위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소통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